

#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 '주민제안·토론' 활발

### '바로소통 광주!' 오픈 40일 미세먼지·무등산·수영대회 제안 130여건·토론 3건 진행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 가시화



“무등산 군부대 이전과 복원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정부 방송사와 통신사 중계탑도 정비해야 한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기회로 해의관광객들에게 지질공원 무등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광주의 자랑 무등산에 관한 것까지 시민들의 제안은 다양하기만 하다.

광주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오픈한지 40일 만에 130여 건이 제안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 제안 가운데 3건에 대한 토론

도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정책 제안은 30일간 공감 수 100명을 얻으면 토론방으로 이어진다. 토론방으로 이어진 시민 참여 제안은 '여성 안심도시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것부터 먼지 없는 클린광주 만들기,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대책 수립에 관한 것이다.

우선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여성이 안전한 광주를 만들자'는 제안은 9일 만에 토론으로 넘어가 '좋아요!' 174명을 얻으면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광주시 시민안전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

시책을 소개해 토론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함께 철저한 보전과 복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5일 만에 토론으로 넘어가 '좋아요!' 53명을 얻으면서 한창 토론 중이다.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방안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 무등산의 보전과 함께 지질공원 접근로로 무등산 정상부에 위치한 방송사 중계탑 등 인공 시설물 정비도 요구하고 있다.

아이디 'k00'은 "광주의 랜드마크 무등산을 친환경 보전과 개발을 통해 함께 남녀노소, 노약자, 지체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다가가 수 있고,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없는 클린한 광주를 만들자'는 제안은 5일 만에 토론으로 넘어가 '좋아요!' 14명을 얻으면서 토론 중이다.

제안된 정책 토론에 참여한 시민 수가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되면, 10일 동안 광주시 관공서와 시민권익위원회 분과위에서 검토한 이후 시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로 넘겨진다. 시민권익위에서 '실행'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다.

시민제안 130여 건 가운데 복지교육환경분야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시재생교통건설분야 37건, 문화관광체육분야 22건, 일자리 경제분야 20건 등 순이었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거나 SNS(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 하나만으로 '바로소통! 광주!!' (barosotong.gwangju.go.kr)에 바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두다다쿵' 타고 패밀리랜드 가볼까

### 광주시 캐릭터 버스 운행

광주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부터 캐릭터 버스 '두다다쿵' (사진)을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두다다쿵'은 지난 2014년 EBS가 최초로 광주 CGI 센터 입주기업인 아이스크림 스튜디오와 공동으로 기획·제작하고 방영한 3D 애니메이션이다.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캠퍼카를 타고 여섯살 꼬마 두더지인 주인공 두다가 같은 나이의 소녀인 다다와 자연 속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당시 EBS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4년 5월에도 버스를 운행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 5·18민주화운동 등이 겹치면서 9일만 운행했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패밀리랜드를 경유하는 매일 26번 노선에 버스 1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하루 8회 운행할 계획이다. 정규 노선에서 시내 버스 요금이 적용된다.

운행 노선과 시간은 광주버스운행정보(bus.gj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캐릭터 사용허가, 버스 캠퍼카 같은 나이의 소녀인 다다와 자연 속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당시 EBS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 광주시 공모 77명 등 99명 구성

광주시의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촉장을 수여한 뒤 '2019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제5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77명, 추천을 통해 전문가 및 사회적 약자 등 14명 등 위촉직 위원 91명을 선정했다. 여기에 당연직 위원 8명까지 포함해 총 9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2020년 12월까지 2년 간 시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등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 소방본부 소방관 힐링캠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일부터 3주간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경남 통영 한려해상생태탐방원에서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안사업 접수 건수가 적은 전략산업 분야를 일자리경제 분과로 통합·운영하고,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수렴 범위가 5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 1억원 이상 신규 사업 등까지 확대돼 폭넓은 활동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0년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공모한 결과 621건 1170여 억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구체화를 거쳐 분과위원회 심의, 전체회의 투표 절차 등 단계별 검토과정을 통해 예산편성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정보소의 저소득층·복지시설에 사랑의 그린 PC 600대 보급

광주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2300만원을 투입해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랑의 그린PC보급 사업은 중고 PC를 정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다.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기관을 선정해 모두 600대

를 보급한다.

다음달 7일까지 단체는 광주시 행정정보담당관실에, 개인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정보화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lovepc.nia.or.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는 필수사항 입력 후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동의해야 신

청할 수 있다. 동의 시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류를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사랑의 그린 PC 홈페이지(lovepc.nia.or.kr) 및 광주시 행정정보담당관실(062-613-2614)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6459대의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무등·사직도서관 7월까지 시민 인문학 강좌

광주시립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일상, 인문학의 시선'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연구단 지역 인문학센터 노동돌'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무등도서관과 사직도서관에서 각각 2개의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무등도서관은 16일부터 7월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송병삼·박종열 강사의 진행으로 '인문학, 세계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인문학, 세계를 만나다'는 오디오북스왕,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백석시인 등을 소재로 고전과 영화를 뛰어넘는 흥미로

운 내용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된다. 사직도서관에서는 14일부터 7월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전남대학교 박세인 강사가 '고전으로 호남을 여행하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의 전통적 문예공간과 관련된 문인들의 시와 노래, 문장을 감상하고, 옛사람들의 해안에 기대어 지금 우리의 삶과 시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을 듣고 싶은 시민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내 문화강좌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도서관(062-613-7752), 사직도서관(062-613-7772)에 문의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북구 어린이 안전도시 만들기...20개 과제 추진

광주시 북구가 어린이와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 나선다.

북구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9년 어린이안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어린이안전정책은 어린이, 학부모·참여행정, 안전인프라 구축, 안전제도 개선, 안전문화 조성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

북구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명예기자단을 운영해 안전모니터링, 취재기사 작성 등 어린이 눈높이로 본 안전에 관한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한다.

구는 대로변에 위치한 22개 초등학교 신입생 2075명에게 가방안전방도를 배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18개 교통섬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해 교통섬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